

Juhun Lee

Professor Hyejin Kim

Translation Practicum

17 April 2024

탐광하기 좋은 날 | 기후 불안을 파서金を 캐는 방법

채광 업계에서는 언제나 경제 발전을 명분 삼아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착취해왔다. 금, 은, 철, 구리를 이유로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삼은 이들이 있지 않은가?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피투성이 다이아몬드¹는 또 어떤가? 콩고의 코발트 광산에서 곡괭이를 드는 이는 아이들이 아닌가? 콜롬비아에서는 거대한 채광 기업이 후원하는 준군사조직이 수천 명을 죽이지 않았는가? 이런 일을 벌인 이들이 이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을 명목으로 세계 최빈곤층을 착취할 것이다. 작년 『네이처』지에 수록된 한 연구는 녹색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원자재의 반 이상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소농민이 모여 사는 저개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광산이 이러한 지역을 스멀스멀 잠식하면 이들은 결국 고향을 떠나거나, 환경 오염을 매일같이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올해 PDAC 행사에서는 광산업이 원주민들에게 가져다주는 경제효과에 집중했다. 퍼스트 네이션² 출신 연사들은 광산업이 원주민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역설했다. 캐나다 마니토바 주에 있는 마르셀 콜롬(Marcel Colomb) 퍼스트 네이션 소속인 도니 맥컬럼 씨는 원주민과의 경제 협력을 다루는 공개 토론회에 참여했다. 곧 토론회 청중에게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광산이 있기 전, 우리에게서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2022년, 마르셀 콜롬 퍼스트 네이션은 주민들이 근처 금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두 위탁 회사와 공동 투자 계약을 맺었다. “우리도 파이 한 조각은 가져가야죠.” 맥컬럼 씨의 설명이 끝나자, 오파스콰약 크리(Opaskwayak Cree) 퍼스트 네이션 출신 사회자 크리스티안 싱클레어 씨는 다른 퍼스트 네이션도 마르셀 콜롬 퍼스트 네이션을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미국 콜로라도 주 남서부에 있는 남부 우테족의 성과도 함께 언급했다. 남부 우테족은 부족 영토에서 뽑아낸 석탄층 메탄가스로 시장 가치 30억 달러짜리 기업을 일구어낸 경력이 있다.

광산업의 발전은 곧 퍼스트 네이션의 발전이라는 주장은 모두가 만장일치라 받아들이는 듯 했다. 단 한 명 빼고는 말이다. “이렇게나 짧은 기간에 큰돈을 만드는 이 사업을 대지가 과연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긴 머리를 묶어올린 한 나이 지긋한 남자가 토론회 패널을 향해 따져 물었다.

나는 이 남자를 PDAC 토착민 지원 프로그램 피로연장에서 다시 만났다. 무스 크리(Moose Cree) 퍼스트

¹블러드 다이아몬드(blood diamond)는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생산되는 다이아몬드를 말한다.

²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전 캐나다 지역에 정착한 원주민들이 이룬 국가 내지는 공동체이다.

네이션 출신 릭 치추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들소 포트파이³와 줄풀 샐러드를 담으며 나에게 무스 크리 자치령 근처 커다란 금광 이야기를 해 주었다. 취업이 보장되고, 건강 보험도 회사 측에서 들어주는 등 이득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업은 이익을 좇아 종종 원주민들과 충돌했다. 원주민의 문화와 자주성을 존중하려는 노력도, 집을 떠나야 했던 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도 부족했다.

광산업은 캐나다의 여러 퍼스트 네이션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원주민들을 불안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왔다. 여태까지 그러하였듯,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러할 터다. 지난 10년은 특히 충돌이 빈번했다. 시위대는 광산을 막으며 목소리를 높였고, 곧 무장 경찰이 대거 연행해 가는 일이 반복됐다. PDAC 컨퍼런스가 한창인 와중에도 나스카피(Naskapi) 퍼스트 네이션과 이누(Innu) 퍼스트 네이션은 캐나다 퀘벡 주에서 철광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그 누구도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않았다.

³고기와 야채를 넣어 끓인 수프를 그릇에 담아 파이 시트를 덮어 구워낸 파이의 한 종류.